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인맥의 특징과 중간집단 참여 효과를 중심으로 *

이재열**, 남은영***

이 연구는 한국인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맥 활용에 주목하고, 인맥의 구성과 그 효과가 계층과 중간집단 참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인맥 쌓기의 결과 의식과 태도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의 결과 핵심적 중산층은 인맥의 활용 범위에서 주변적 중산층이나 하층에 비해 훨씬 광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맥의 범위 뿐 아니라 해결력까지 고려한 유효인맥자산은 계층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풍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유효인맥자산의 크기는 중산층 정체성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특히 유효인맥자산이 클수록 스스로 사회적 지위와 문화수준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한편 인맥형성은 다양한 중간집단에 대한 참여가 활발할수록 촉진되는데, 이 때 참여하는 집단의 성격에 따라 의식과 태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연고집단 참여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는 경향이 높고 지역차별적 태도를 갖는 반면, 자발적 결사체 참여가 활발하고 유효인맥자산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탈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인맥과 함께 결사체 참여경험은 건전한 시민의식과 신뢰를 유의미하게 제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서구의 사회적 자본개념을 한국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제도와 문화적 상황에 맞는 변형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사회적 자본, 중산층, 유효인맥자산, 중간집단 참여, 신뢰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인 "사회의 질 연구:사회문화적 측면" (과제번호 J01602)의 연구성과의 일부임.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jyee@snu.ac.kr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neylee@hanmail.net

I. 문제제기

한국사회에서 인맥은 사회생활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진다. 직장인들을 위한 인맥관리 기술에 관한 서적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왜 인맥관리가 중요한지, 인맥관리가 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인맥관리 방법 등을 소개하며, 인간관계 추구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이러한 인맥관련 저술에서는 공통적으로 “인맥은 성공을 위한 투자”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사회생활에서는 인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관계가 가져오는 결과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연결망 속에 배태된 자원”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축적해 오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지위를 획득하는데 있어서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가령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연결망을 통해 활용한 자원이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Lin et al., 1981; Hsung & Sun, 1988; Masden & Hulbert, 1988; De Graaf & Flap, 1988; Meyerson, 1994; Lee & Brinton, 1996; Bian & Ang, 1997), 연결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적 지위, 감독직, 승진, 보너스 등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Lin, 1999)도 연결망에 나타난 자원들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관계는 교육상 성적과 성과를 이해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Coleman, 1988). 이와 같이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개인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한편 집합체에 대해서는 거시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시민참여와 일반화된 신뢰에 관한 연구들이 또 다른 흐름을 이루고 있다. 사회적 연결망과 시민참여 사이의 관련성을 정식화한 퍼트남의 연구(Putnam, 2000)가 대표적이며 자발적 결사체나 기타 조직체 참여가 지역사회 발전에 일정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Woolcock, 1998)나 자발적 조직체 회원이 되는 것과 정치참여와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Verba et al. 1995) 등도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도 상이한 맥락에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개념의 용례를 분명하게 하여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할 때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나 집단소속 여부를 이용하여 가치 있는 경제적, 상징적 자원을 획득하는 능력’을 의미하거나, ‘복수의 개인들에 의한 공동의 참여나 제도에 대한 신

되, 혹은 확립된 생활양식에 대한 헌신을 통해 집합행동의 이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때 전자의 의미를 '관계적 사회자본(relational social capital)'이라 정의하고, 후자를 '제도적 사회자본(institutional social capital)'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Krishna, 2000). 굳이 나누자면 전자가 개인적 수준, 혹은 개인 간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사회 전반적 수준(societal level)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관계적 자본은 개인적 수준에서의 행위와 사회적 수준에서의 구조적 결과 사이를 매개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사회적 관계의 생산적 잠재성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투자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활용한다(Lee, 1996). 관계적 자본(A. Smart, 1993)의 분석을 위해서는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83)의 약한 연결망과 강한 연결망의 틀을 빌려 올 수 있다. 강한 연결망은 다면적이며 안정된 일반적인 관계적 자본이다. 친구 혹은 친척관계와 같은 일차적인 관계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정서적인 만족, 재정적인 목적, 사회적 위급상황에서의 지원과 같이 그 활용은 여러 측면에 걸쳐 확산된다. 한편 약한 연결망은 일면적인 특수한 관계인데 행위자는 특수한 경우에만 관련되며 이러한 관계로부터 오는 관계적 자본은 특정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대부분의 이차적인 사회적 관계 즉 회사조직에서의 역할체계, 시장교환에서의 협력관계 등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이와 같이 강한 연결망과 약한 연결망이 모두 관계적 자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콜만의 의하면 폐쇄적인 사회적 관계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대인간 신뢰를 촉진시키고, 집합행동을 위한 권위를 만들어내며 행위자들이 자원을 모아 새로운 작업에 공동 투입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콜만은 사회적 관계형성이 미시와 거시를 연결하는 대안으로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Coleman, 1988).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상호인지와 인정이라는 다소 제도화된 관계의 지속적인 연결망의 소유와 관련되어 있는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집합적 자원이며 소유된 자본은 소속원에게 신용으로 보증해 주는 "신용증명"의 역할을 한다(Bourdieu, 1986).

한편 참여나 제도에 대한 신뢰로 표현되는 사회적 자본은 시민참여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서 축적되어 왔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콜만은 사회적 연결망과 공유된 규범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교육, 구직, 경제적 자본의 축적, 자

녀양육 등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치학자인 퍼트남은 콜만의 “사회적 자본” 이론과 토크빌로부터 도출된 자발적 결사체에 관한 명제들을 결합시켜, 각 지역에서 자발적 사회집단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 더 효율적인 거버넌스 제도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적 자본은 참여자들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도록 만드는 신뢰, 규범, 연결망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질이라고 보았다(Putnam, 1993).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보다 거시적인 논의는 공동체 수준에서의 분석인데, 집단이나 공동체 수준에서 높은 신뢰나 협력, 그리고 참여확대는 제도의 효과성, 변화하는 거시적 조건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 등을 공통의 결과변수로 산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개인수준과 공동체 수준의 사회적 자본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자본이 한 개인이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관계적 속성을 갖는 다는 점과 공공재적 특성, 도덕적 자원의 특성을 갖는 동시에 관계가 동질성을 강화시켜 배타주의를 강화할 수도, 이질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공통의 관심으로 묶어주어 개방성과 상호호혜성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 모두 기반하고 있는 것은 관계의 사회적 맥락(social embeddedness)이다. 개인수준과 집합수준의 행위는 모두 사회구조 안에서 다양한 수준들 간에 행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의해 한편으로 가능해지고(enabled), 다른 한편으로 제약받는다(constrained)고 하는 기든스의 구조화 명제를 상기해볼 때 이러한 맥락성의 효과는 현실적으로 쌍대성(duality) 개념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Giddens, 1986). 어떤 수준에서 포착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자본개념은 상이한 역사성과 무게, 그리고 기능과 형태를 갖는 것으로 인식된다.

1) 그가 첫 번째로 들고 있는 사례는 뉴욕의 유대인 보석상들 간의 관계이다.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매달려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반면에 유대인 보석상들 간에는 상호 신뢰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밤새 보석의 가공을 위한 위탁과 재배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약된다는 것이다. 그가 두 번째로 들고 있는 사례는 학부모들 간의 관계이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자. 만일 학생들 간에는 서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부모들이 서로 알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고, 아이들은 부모를 속일 수 있다. 반면에 아이들 뿐 아니라 부모들 간에도 서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들 간에 숙제와 학교생활에 대한 활발한 정보소통이 이루어져 아이들에 대한 지도가 훨씬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Coleman, 1988).

이와 같이 복합적인 맥락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자본 개념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맥락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한국적 맥락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제도적, 문화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국은 전통적인 농업 사회였고 근대적 의미의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혈연공동체와 지연공동체의 강한 영향력 하에 연고를 중심으로 집단을 형성하는 전통이 존재했다. 그래서 귀속적 특성에 기반을 둔 모임이 사회생활의 주된 준거가 되었다. 물론 근대화와 민주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발적인 결사체들이 자유롭게 만들어지고 결사체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들에 의해 사회가 재조직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변동의 과정은 귀속적인 관계에서 자발적 결사체로 관계 양상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정수복, 1996).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전통적 공동체는 급속히 와해된 반면, 도시형 사회에 맞는 사회조직의 원리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통적 공동체가 장기간에 걸친 산업화과정에서 시민사회형 참여결사체의 형태로 전환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산업화 과정으로 인해 시간적 압축이 이루어진 결과 전통적 공동체는 연고주의로 변형되어 온존하면서, 동시에 개인주의, 경쟁, 소외감이 확산되었고 시민의식과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채 시민적 참여공동체보다는 닫힌 연고형 공동체가 주도해왔다(이재열, 2006).

그동안 사회적 자본을 둘러싼 논쟁이 매우 활발했지만, 여전히 미시적 차원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둘러싼 논쟁을 한국적 맥락에서 소화하기 위해서는 인맥과 연고 등의 전통적인 개념과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최재석(1976)은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으로서 친소구분의식을 들고 있는데, 한국인은 누구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성과 이름과 나이를 묻고, 동족 여부를 살핀 다음, 어떠한 정도로 친소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행위 규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친소를 구별하는 의식을 '파벌'이나 '붕당'이 불가피하게 존재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하며, 친소를 가리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이나 유독 한국인은 가족주의로부터 파생된 특이한 친소구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최재석, 1976). 김경동(1993)은 한국인의 사회적 특성으로 위계서열적 권위주의, 연고위주의 집합주의, 인정주의(personalism), 의례

주의적 도덕주의(ritualistic moralism)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박승관(1994), 나은영·민경환(1998), 송호근(2003), 김용학(2003), 하용출(2006), 정수복(2007) 등은 모두 연고주의를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이들의 논의는 모두 연고주의의 뿌리를 가족주의에서 찾는다든 점과 가족적 유대와 결합하지 않는 타집단과의 구별이 명확한 경우 파벌화할 수 있는 한국문화의 특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사회적 관계의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추상적인 정의보다는 한국적 맥락에서 중요성을 갖는 자원동원기체인 인맥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후, 인맥동원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인맥을 동원하는 능력이 사회적 불평등이나 사회의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접근법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미시적인 특성인 인맥으로부터 출발하여 한국인의 인맥활용의 특징을 살펴보고, 인맥형성이 연고집단 및 결사체 참여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한편 인맥과 중간집단 참여 양상이 정치적 관심, 정치성향, 지역차별의식, 중산층귀속감, 탈권위주의, 신뢰, 공동체의식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추구가 사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찰하려고 한다. 특히 참여집단을 연고집단 및 결사체로 구분하여 중간집단의 성격에 따라 사회의식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연구에서 지금까지 각각 분리되어 진행되어 온 개인의 사회적 관계의 미시적 효과들에 대한 논의와 결사체 참여 및 신뢰, 공동체 의식의 거시적 결과에 대한 연구를 서로 결합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중시되는 인맥이 단지 미시적인 자원동원의 측면 뿐 아니라 집합체의 차원에서 사회전체적으로 보다 긍정적 발현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관계적 자본으로서의 인맥

1. 한국사회에서 인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구조론적 설명

최재석(1976)은 한국인은 개인의식보다는 집단의 동질성과 유대를 강조하며 공동체로부터 개인이 미분화된 것을 한국인의 성격의 하나로 보았다. 이와 같이 함께 모이고 즐기는 집합적 삶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문화로 인해 한국인에게 있어서 관계적 자본은 매우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되고 있다.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중시하는 관계망 속에서의 삶이 인맥형성의 중요한 준거점이자 원초적 유대감을 형성시켜주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파벌과 인맥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는 한국적 인 개념이다. 먼저 파벌이란 집단 간의 폐쇄성과 집단 내 위계성을 특징으로 하며 관계의 비공식성, 집단의 강한 귀속감을 특징으로 한다. 파벌과 쌍대성을 이루는 개념은 인맥으로 '정계, 재계, 학계 따위에서 형성된 같은 계통·계열의 딸리는 사람들의 유대관계'²⁾라고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인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혹은 한 두 다리를 건너서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프이론(graph theory)의 정의에 따르면 인맥은 개인은 중심에 둔 연결망(ego-centric network component)으로서 한 개인과 연결된 타자들의 집합(alterns connected to and ego)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맥에서는 관계의 중첩성(multiplicity), 접촉의 빈도(frequency), 관계의 지속기간(duration)이 길수록 인맥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관계의 중첩성이란 복수의 관계에서 연결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단순한 선후배관계보다는 선후배관계와 인척관계가 중첩되는 경우 더 강한 인맥이 된다. 한편 인맥은 인격윤리가 작동하는 경우에 그 힘이 극대화된다. 인격윤리는 상대방을 전인적인 교체의 대상으로 대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을 계약이나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개인주의적/계약주의적 관계규칙과 구별된다. 인맥은 호혜성을 기반으로 하며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보다는 상호호혜적인 교환이 이루어질 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인맥은 비공식적인 파벌이 강한 사회에서 그 존재가치가 드러나며, 인맥이 발달한 사회는 파벌이 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 반대로 인맥이 중요하지 않은

2) 『엘리트 국어사전』(2008), YBM SISA.

사회는 비공식적 파벌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이며, 파벌이 없는 사회에서는 인맥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도 그만큼 감소한다.

인맥과 파벌은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양자간의 쌍대성을 고려한다면, 인맥은 파벌이 강한 사회에서 유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논리에 따른다면 한국사회에서는 파벌 형성이 촉진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맥이 더 중요해지는 사회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그 논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유는, 한국사회에서는 계약윤리보다는 인격윤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서양 사이에는 사고방식과 사회질서를 규제하는 규범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차이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과 비교철학, 그리고 문화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되어 있다. 장윤식은 개인주의가 개인의 독립, 자율성, 자아의 발전 등을 더 강조한다면, 인격윤리는 사회생활에서의 인정, 의리, 인격완성, 원만한 인간관계, 집단이나 공동체의 조화 등을 더 강조한다고 주장한다(장윤식, 2001). 동서양 비교철학의 대표적 학자인 에임스(Roger Ames)나 홀(David Hall)은 동서양간 인간성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플라톤, 로크, 밀, 롤스 등에 이르기까지 초자아 의식을 가진 개인이라는 관념을 강조하는 서양에서는 오랜 개인주의 전통으로부터 매우 급진적인 자유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이 민주주의와 계약의 토대이지만 또한 서구사회의 폭력, 소외, 외로움 등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본다. 반면에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관계론적인 인간개념이 핵심이며, 개인은 독립된 것으로서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 국가, 우주 등의 맥락에서 인식된다고 본다. 그래서 구체적인 관계의 맥락위에서 사고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Hall and Ames, 1987).

중국의 전통사상과 서양사상을 비교한 중국 철학자 첸웨이핑(陳衛平, 1999)이나 <생각의 지도>(The Geography of Thought, 2003)를 저술한 미국의 심리학자 니스벳(Richard Nisbett)도 동서양의 차이에 대해 공감의 목소리를 낸다. 동양적 인간형은 관계형이며, 사유방식은 보다 직관적이고 총체적이며 변증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인맥이 중요한 이유는 집단 내 권력거리와 위계성이 크기 때문이다. 권력거리란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불평등의 정도를 뜻한다. 권력거리가 큰 사회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신의 의견표시를 하기 힘들다. 상하신분에 따르는 다양한 서열의식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

간을 다 같이 동등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항상 상하(上下), 존비(尊卑), 귀천(貴賤)으로 구분하고 평가하는데서 잘 드러난다. 최재석은 예법의 발달, 그리고 경어(敬語)의 발달 등은 한국사회의 강한 서열의식을 잘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본다.³⁾

세 번째, 파벌의 결속과 강화에 영향을 미쳐 인맥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투명한 규칙부재가 만들어낸 환경의 불확실성이다. 투명한 규칙은 공권력이나 정부체계에 대한 신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단체나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았다.⁴⁾ 특히 사법부, 행정부, 국회의 신뢰도가 가장 낮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입법, 사법, 행정부 등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며 위반자를 처벌하는 심판 기관에 대한 불신이 유독 크다는 것은, 비유컨대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심판 판정의 정당성을 받아들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힘있는 사람과의 인맥에 의존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규칙의 일관성이 없는 사회에서 공식적 통로를 통한 문제해결보다 인맥 활용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선택된다.⁵⁾ 규칙이 투명하고, 모든 사람이 규칙 앞에서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인맥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공정한 결과를 기다리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덕스

3) 최재석은 한국적 파벌의 원형인 '왕초-똥마니 집단'을 일본의 오야붕(親分)-꼬붕(子分) 관계에 대응하는 것으로 둘 다 그 원형이 부자(父子)관계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권위와 보살핌을,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미덕으로 한다. 부자관계가 이념이나 주장에 우선하는 일차적 혈연관계인 것처럼, 왕초-똥마니 관계도 자기 소속 집단의 내부 관계에 무조건적인 혜택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끈끈한 관계로 묶여 있다. 그래서 가족적 결속은 외부인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닫힌 문이 되곤 한다(최재석, 1976).

4) 절대적 신뢰를 100, 완전한 불신을 0으로 해서 점수를 매겼을 때, '가족'에 대한 신뢰가 92점으로 가장 높았고,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가 37점으로 가장 낮았다. 또 '친척'(71)이나 '동창생'(68)과 같이 혈연과 학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은 반면에, '동네가게 주인'(58), 시, 군구청 공무원'(47), 외국인노동자(46) 등 순으로 신뢰점수는 낮았다. 연고자는 신뢰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출처: 동아시아연구원의 광복 60주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한국일보」 2005년 1월 25일자 참조)

5)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OOO정부 핵심인맥」 등의 도서가 베스트셀러로 뜨는 현상은 파벌과 인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 정치의 실정을 잘 반영한다.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격렬한 파벌 간 경쟁은 신문의 정치면을 장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특정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단 내에서도 파벌경쟁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이이화(2004), 이영훈(2000), 박종성(1992) 등 참조.

런 현실에서 규칙의 투명성이 없다고 느낄 때는 비공식적인 인맥을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⁶⁾

2. 인맥에 대한 정의와 조작화

인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연결의 성격과 연결대상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형식으로 보면, 인맥은 일정 강도의 연결이 존재해야 하고, 그 연결은 인격윤리의 지배를 받는 호혜적 관계여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관계를 ‘응답자의 가족, 혹은 8촌 이내의 친지, 친한 친구, 동창’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개인의 인맥에는 다양한 타자들과의 연결이 포함될 수 있지만, 정보나 통제력 등 희귀한 사회적 자원이 대체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특정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러한 자원분포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맥의 대상 범위를 일상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 도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권력 혹은 전문성을 가진 대표적인 직종에 한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인맥의 연결 대상이 되는 타자로 선택된 직업군을 다음과 같다.⁷⁾

- ① 고위공무원(4급 서기관 이상)
- ② 법조인(검사, 변호사, 판사 등)
- ③ 대학교수

6)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인맥의 수는 96.1명이며 인맥에는 업무상 알게 된 ‘사회인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맥 전문사이트 인크루트 인맥이 직장인 1,975명에게 ‘인맥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1명당 평균 32.4명의 사회인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학연인맥(21.7명), 혈연인맥(14.1명), 지연인맥(13.6명) 등의 순이었다. 직장인들이 ‘가장 공들여 관리하는 인맥’은 사회인맥(48.8%)이었고 이어 혈연(23.0%)과 학연인맥(17.0%) 순이었다. (‘동아일보’, 2008.5.9)

7) EASS(East Asian Social Survey,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08)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조사에서 “귀하와 연락하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음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2) 상급관리자 3) 전문가 4) 엔지니어 및 준전문가 5) 사무직원 6)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7) 농업, 어업 및 임업속련 근로자 8)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9) 공장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0) 단순 노무자 와 같이 모든 부문의 직업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민의식조사 원자료> (한국사회학회, 2006)에서는 도구적인 도움을 줄 개연성이 큰 전문직과 상급관리직으로 응답범주의 대상 직종을 제한하였다.

- ④ 언론인
- ⑤ 의사
- ⑥ 경영자(CEO)
- ⑦ 군인(대령이상) 및 경찰(총경 이상)
- ⑧ 예술가(소설가, 화가, 음악가, 영화감독 등)
- ⑨ 국회의원

그리고 ‘인맥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text{인맥범위} = \sum \text{인맥}_i \quad (\text{인맥}_i=1 \text{ if 해당인맥이 존재할 때, 인맥}_i=0 \text{ otherwise})$$

이때 인맥범위는 0에서 9까지의 값을 갖는다. 0인 경우에는 상기한 직업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고 9인 경우에는 모든 직업군에서 동원 가능한 인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각 범주별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상이하다. 그래서 각각의 인맥의 범위와 각 인맥의 해결력의 비율을 곱한 값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응답자의 유효인맥자산 값을 계산하였다. 이 때 인맥의 해결력이란, 인맥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에 비교하여, 특정 인맥이 존재했을 때 문제를 해결한 상대적인 배율을 의미한다.

$$\text{유효인맥자산} = \sum (\text{인맥}_i \times \text{인맥}_i \text{의 해결력})$$

따라서 유효인맥자산의 값은 논리적으로 0을 최소값으로 하며, 최대값은 9보다 훨씬 큰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최대값을 가지는 사람은 소위 ‘마당발’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인맥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맥범위나 유효인맥자산은 사회적 연결망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 선호적 연결(preferential attachment)의 경향을 띠므로 이들의 분포는 부익부 빈익빈 경향을 나타낼 것이다. 즉, 도시 간을 연결하는 도로망의 분포나 키와 몸무게의 분포 등과 같은 정규분포보다는, 인터넷에서 링크의 분포나 항공노선의 분포처럼 대다수 노드는 0의 값을 갖고, 소수 노드에게 링크가 집중하는 매우 불평등한 멱함수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인맥범위와 유효인맥자산은 부익부 빈익빈의 성격이 강한 멱함수 분포를 할 것이다. 특히 인맥범위보다는 유효인맥자산의 분포가 더욱 불평등한 분포를 보일 것이다.

유효인맥자산의 분포가 더 불평등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인맥범위가 단지 노드들을 연결하는 연결유무만을 보여준다면, 유효인맥자산은 연결의 효과성이라는 가중치까지 고려하므로 실제 현실에서의 쏠림현상을 더 잘 반영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3. 인맥형성의 차이와 그 결정요인

이처럼 매우 불평등한 분포를 보이는 인맥의 차이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첫 번째 인맥은 정외상 상당한 전문직종 종사자들과의 연결성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전문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직일수록 두터운 인맥을 활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전문직종 종사자들일수록 풍부한 인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설 2.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풍부한 인맥을 가진다.

이 가설은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서, 그리고 저학력층보다는 고학력층에 속한 사람들이 더 풍부한 인맥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하층이나 주변적 중산층보다는 핵심적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이 더 풍부한 인맥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유효인맥자산은 다양한 중간집단에 대한 참여와 관련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고려할 사항은 조직참여가 활발한 사람이 사회생활에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훨씬 풍부한 인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가설 3. 중간집단 활동 참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풍부한 인맥을 가진다.

다만 어떤 유형의 집단이나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집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가족과 친지, 혈연 및 학연집단 등의

연고적 집단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개방적인 결사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유상종효과(homophily), 이종교류효과(heterophily), 그리고 구조혈(structural hole) 등의 개념⁸⁾과 연관하여 해석해 볼 때, 연고집단의 경우에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응집성이 높은 강한 귀속감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유유상종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집단내 연결의 상호중첩성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인맥 범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유효인맥자산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약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개방적인 결사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종교류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정보의 소통이나 희소자원의 분배 및 유통과 관련하여 다리놓기 효과 등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성립된다.

가설 4. 폐쇄적인 연고집단에 주로 참여하는 사람보다는 개방적인 결사체에 참여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풍부한 유효인맥자산을 갖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연고집단이란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일차적이고 생득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모이는 귀속적 집단으로 정의하고, 자발적 결사체는 특정한 취미를 공유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모임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모두 9가지 유형의 중간집단 중 응답자가 활동하는 단체가 있다면 모두 고르도록 하였는데, 이중에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계모임 등을 연고집단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단체들, 즉 취미·스포츠·레저단체, 시민단체, 사회봉사단체, 이익단체, 지역사회단체 등을 자발적 결사체로 구분하여 유형화하였다.

8) 사회적 자본을 개인 간의 관계의 수준에서 논의할 때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행위자 간의 친밀한 결합과 상호중첩성의 증대인데, 이 경우 소속감과 상호친밀성의 증대, 강한 집단 귀속감 등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를 유유상종효과(homophily)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종교류 효과(heterophily)는 정보나 희소자원의 분배와 유통과 관련하여 상호연결성의 증대가 가져오는 연결효과이다. 이러한 다리놓기 효과는 파당들 간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약한 연계는 파편화된 사회의 소통채널로 작동함으로써 집합행동이나 혁신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한 행위자가 가진 연계의 총량이 바뀌지 않더라도 연계의 대상을 달리할 경우 관계의 중첩성을 줄일 수 있고 그 결과 네트워크 전체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데, 버트(Burt, 1992)는 구조혈(Structural holes)의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했다.

4. 관계 맺기의 특징과 사회경제적 의식

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의 특징은 개인의 사회의식이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생각이나 태도는 은연중에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주위사람들의 태도나 반응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개인의 관계의 폭이 넓고 연결성(brokerage)이 강한 경우 응답자의 중산층 귀속감과 자기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경향도 보고된 바 있고 ‘개인의 사회적 관계의 폭이 확대되면 다양한 견해에 노출되어 응답자의 개방적인 태도를 강화시키고 편견을 약화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광범하게 인맥을 활용하고 다양한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정치적 극단주의자나 사회적 차별을 받는 집단에 대해 오히려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tolerant)는 것이다(Laumann, 1973).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계층 간의 차이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가지 지표로 사회적 관계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기존의 연구가 자산이나 소득, 직업 등만을 고려하는 경제적 접근을 취했다면 이 연구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계층 귀속감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유유상종의 효과는 접촉이 잦은 사람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요 전문직종 종사자들과 풍부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가설 5. 인맥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길 확률이 높아진다.

계층귀속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인맥동원능력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경제적 차원의 계층적 지위보다는 사회적 지위나 문화적 수준 등에서의 위치에 대한 자기인식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인맥을 쌓는 일은 사회적 접촉이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

가설 6. 인맥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경제적 지위보다는 사회문화적 지위를 높게 인식할 확률이 높아진다.

사회적 연결망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상이한 태도와 의식을 낳을 수 있다. 유유상종의 효과가 두드러지는 경우에는 유사한 사고와 의식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관계가 굳어지므로 집단내 결속은 강화되는 반면, 외부인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갖기 쉽다. 반면에 개방적인 결사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고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촉과 교류가 촉진되기 때문에 외부집단에 대한 관용성이 높아지며, 탈권위적이고 탈인습적이며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촉진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설 7. 연고집단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에 비해 결사체를 중심으로 인맥을 구축한 사람들은 덜 인습적이고, 외부인에 대해 덜 차별적이며, 탈권위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갖는다.

이러한 가설이 가능한 이유는 지연, 혈연, 학연 등의 동일한 귀속적 지위를 공유하는 유유상종(homophily)의 경향을 갖는 조직보다는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 그리고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개방적인 결사체일수록 이종교류(heterophily)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편견이나 폐쇄성을 극복하고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갖도록 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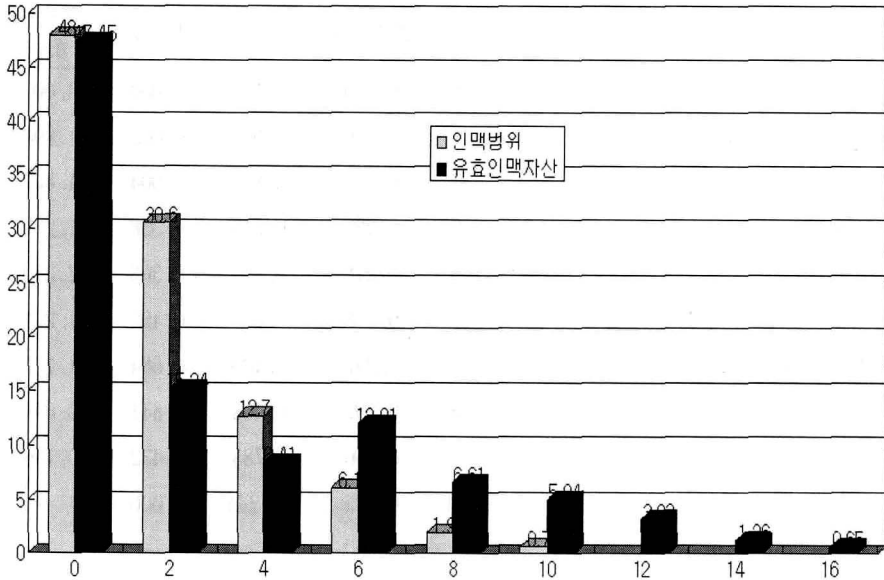
III. 인맥의 분포와 중간집단 참여의 양상

1. 인맥범위와 유효인맥자산

먼저 조사대상자⁹⁾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고위직/전문직 인사들로 구성된 인맥의 분포와 유형별 빈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는 주위 친지나 친한 친구 중 유력인사 인맥을 한 분야도 갖고 있지 않았고, 한 분야 인맥만을 알고 있는 사람은 18.5%, 두 분야 인맥이 있는 사람은 약 12%, 세 분야는 약 8%, 네 분야는 약 5%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약 91%는 전문직이나 고위급 직업 중

9)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사회학회에서 2006년 8월 7일부터 20일간 실시한 “국민의 식조사”의 원자료이다. 이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을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 성별, 연령 비례에 따른 다단계 층화표집의 방법으로 선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의 표집오차는 $\pm 2.5\%$ 이며(95% 신뢰수준), 유효표본 1,515 사례이다. 질문내용은 정치 사회의식, 교육, 가족생활, 사회적 자본, 계층의식, 경제 및 소비생활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림 1〉 인맥범위와 유효인맥자산의 분포와 유형별 비중(%)



사자를 인맥으로 동원할 수 있는 분야가 네 곳 이하였다. 가장 많은 사람은 조사 대상의 전 직종인 아홉 분야에 걸쳐서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주요 인맥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의사(23.8%), 대학교수(20.5%), 경영자(19.9%), 고위공무원(19.7%), 군인/경찰(17.4%), 법조인(14.2%)의 순이었다. 가족이나 친지 중 의사, 대학교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의 2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언론인(9%), 예술가(8.6%)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국회의원은 4.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¹⁰⁾

각 인맥의 채널별로 얼마나 유효하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경우에 해결여부를 질문해야 하지만, 이 조사에서는 전체인맥을 종합하여 해당되는 사람의 도움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있는지를 질문하였기 때문에, 해결경험유무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 직업군별 인맥의 존재유무를 독립변수로 하는 로짓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 경우는 '의사'가 가장 높았는데 그 상대적인 효과는 아무런 인맥이 없을 때에 비해 무려 4배에 해당하였으며, 그 다음

10) 그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국회의원의 절대 숫자가 가장 적기 때문일 것이다.

〈표 1〉 인맥유형별 문제해결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계수	표준오차	z	P> z	상대적 효과
의사	1.388	0.220	6.32	0.000	4.007
군인(대령+)/경찰(총경+)	0.641	0.216	2.961	0.003	1.898
고위공무원(서기관+)	0.632	0.222	2.846	0.004	1.881
대학교수	0.209	0.227	0.919	0.358	1.232
경영자	0.198	0.218	0.906	0.365	1.219
예술가(소설가, 화가, 음악가, 감독)	0.191	0.278	0.687	0.492	1.211
법조인(검사, 변호사, 판사)	0.098	0.242	0.406	0.684	1.103
언론인	-0.136	0.292	-0.466	0.641	0.873
국회의원	-0.279	0.356	-0.785	0.432	0.756
상수값	-3.244	0.173	-18.764	0.000	
사례수	1248				
LR chi ² (9)	122.130				
Prob > chi ²	0.000				
Pseudo R ²	0.141				

이 ‘대령이상의 군인 혹은 총경이상의 경찰’을 알고 있을 때로서 1.9배의 해결률을 보였다. 그리고 ‘서기관 이상의 고위공무원’을 알 경우에도 역시 1.9배에 가까운 해결률을 보였다. 반면에 법조인과 언론인, 국회의원 등의 해결률은 인맥이 없을 때와 별 차이가 없거나 혹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상류층을 제외한 보통사람들의 인맥동원에서는 매우 제한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인맥의 범위와 각 인맥의 해결력의 비율을 곱한 값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유효인맥자산 값을 계산하였는데 이 값은 최소 0, 최대 14.18 사이에 분포하며, 평균은 2.53점, 표준편차는 3.38로서 절반가량은 0의 값을 가지는 반면, 극소수는 14에 가까운 값을 갖는 꼬리가 긴 불균등분포를 한다. 이는 연결망의 진화로 인한 효과는 멱함수분포를 따른다는 복잡계적 법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림 1〉을 살펴보면, 가설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맥범위와 유효인맥자산 모두 꼬리가 긴 멱함수분포를 하지만, 특히 유효인맥자

산의 경우에 분포의 불평등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 인맥차이의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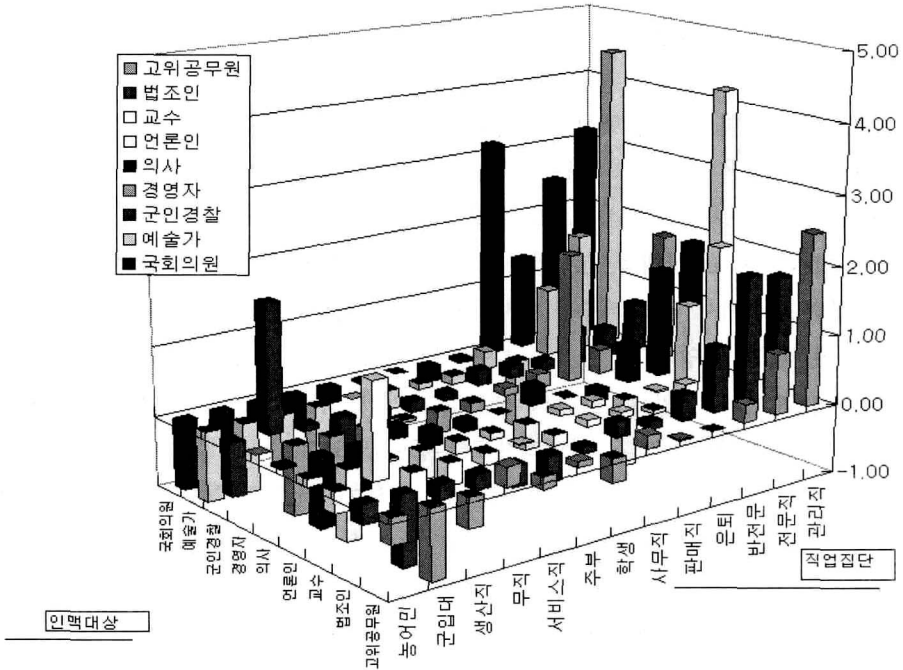
계층별 인맥의 범위는 핵심적 중산층, 주변적 중산층, 하층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 핵심적 중산층의 경우 의사(35.1%), 대학교수(29.4%), 고위공무원(26.2%), 경영자(27.7%), 군인/경찰(21.8%), 법조인(21.5%)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언론인(12.7%), 예술가(12%), 국회의원(6%)은 연줄망의 구성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변적 중산층 역시 의사(19.8%), 경영자(19.8%), 고위공무원(19.1%), 대학교수(18.1%), 군인/경찰(17.6%), 법조인(13.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언론인(7.8%), 예술가(9%), 국회의원(3.9%)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하층 역시 의사, 대학교수, 고위공무원, 경영자, 군인/경찰 등 직종 종사자의 인맥은 약 10%를 상회하는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법조인, 언론인, 예술가, 국회의원의 인맥은 약 5% 내외에 이르고 있었다. 하층은 핵심적 중산층이나 주변적 중산층에 비해 법조인에 대한 인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하층에 비해 핵심적 중산층은 약 2~4배에 가까운 인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인맥 맺기의 대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전체 응답자들을 직업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집단별로 인맥의 대상이 되는 직업군의 비율을 계산한 후, 전체 평균으로부터의 분산의 정도를 표준화된 비율로 환산하여 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관리직의 경우 다른 어느 직업 집단에 비해 중요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인맥으로 맺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예술가, 언론인, 고위공무원을 인맥으로 맺은 비율이 평균의 2배를 넘어선다. 그 다음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인맥을 매우 풍부하게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직업집단의 응답자들은 평균에 그치거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농어민이나 생산직, 서비스직 등에서 상대적인 열세가 두드러진다.

11) 이 연구에서 중산층 범주는 월평균소득 300만 원 이상(1점), 초대졸 이상(1점), 30평 이상 거주(1점), 계급적 지위(중상계급 2점, 화이트칼라 1점, 구중간계급 1점)를 모두 합산하여 3점 이상일 경우 핵심적 중산층, 2점 이상일 경우 주변적 중산층, 1점 이하일 경우 하층으로 구분하였다(홍두승, 2005).

〈그림 2〉 직업집단별 인맥맺기의 대상직업군(인맥대상별 평균대비 표준화점수)



조금 더 구체적인 직업분류별 유효인맥자산의 분포를 살펴보면, 관리직 종사자들이 7.67으로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며, 전문직(5.82), 반전문기술직(3.79), 사무직(3.07) 등이 비교적 많은 유효인맥자산을 소유한 직업집단이며, 반대로 생산직(1.39), 군복무(1.57), 농어민(1.85), 무직자(1.96) 등의 유효인맥자산이 매우 취약했다. 유효인맥자산이 전혀 없는 사람의 비율도 무직자(68%), 농어민(67.4%), 생산직(59.3%), 서비스직(53.5%), 학생(54.6%), 군복무(50%) 등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관리직 종사자의 70%와 전문직의 63%는 5이상의 유효인맥자산을 가지고 있고, 유효인맥자산이 없다는 응답은 10%내외에 불과하여 직업집단간 유효인맥자산의 양극화가 매우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중간집단참여가 인맥형성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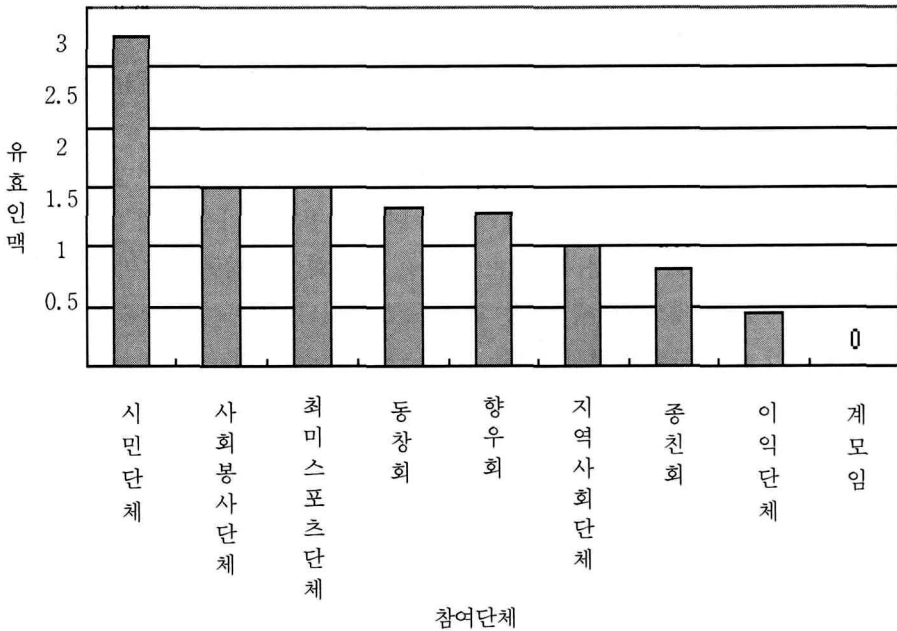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한국인의 중간집단 참여¹²⁾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과 학연, 혈연, 지연을 중심으로 한 연고집단이 주도하고 있으며, 또한 계층간 참여양상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는 계층에 관계없이 연고형 조직에 참여하는 문화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을 반영한다.¹³⁾ 동원가능한 인맥범위로 살펴 보았을 때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인맥의 범위가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3.12직종), 다음으로 사회봉사단체 (2.3직종), 향우회 (2.06직종), 취미·스포츠단체 (2.02직종), 지역사회단체 (2직종)의 순으로 나타나, 향우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단체가 모두 자발적 결사체임을 알 수 있다. 즉 종친회, 동창회, 계모임 등의 연고집단보다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서 동원가능한 인맥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사체참여를 통해 획득되는 정보나 희소자원분배와 관련된 이종교류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조직활동에서 인맥동원이라는 긴밀한 결합과 상호중첩적인 관계와 서로 배타적인 성격을 띠지 않고 오히려 동시에 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중간집단 참여에 따른 유효인맥자산을 살펴보면, 단순한 인맥범위보다 집단별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계모임을 제외하면 중간집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인맥의 범위와 효과(해결력)를 모두 고려한 유효인맥자산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효인맥자산 또한 시민단체 (5.26), 사회봉사단체 (3.95), 향우회 (3.68), 취미·스포츠단체 (3.65), 지역사회단체 (3.5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맥의 효과가 연고집단보다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의 단체 중 계모임은 참석여부에 따른 유효인맥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유일한 단체였다. 참석여부에 의한 인맥의 차이 또한 연고집단보다 시민단체 (2.76) 봉사

12) 여기서 중간집단이란 개인이나 가족과 같은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단위보다는 상위이면서 국가기구와는 구별되는, 시민사회의 영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한다.

13) <국민의식조사> (한국사회학회, 2006)에 의하면 전계층에 있어서 결사체 참여에 비해 연고집단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핵심적 중산층과 주변적 중산층, 하층 간에 연고집단 참여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근소한 차이로 주변적 중산층(1.36 종류)에서 활발하고 다음으로 핵심적 중산층(1.29종류), 하층(1.23)의 순으로 나타난다. 자발적 결사체의 경우에는 핵심적 중산층(0.57종류)과 주변적 중산층(0.52종류) 간에는 차이가 없지만 중산층은 하층(0.26)과 비교하여 약 두 배 정도의 참여도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산층에 비해 하층의 자발적 결사체의 참여가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남은영, 2007).

〈그림 3〉 중간집단참여 여부에 따른 유효인맥자산의 차이



단체(1.5), 취미·스포츠단체(1.5) 등의 자발적 결사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연고집단 중에서는 동창회(1.33)와 향우회(1.27)가 참여여부에 따른 인맥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단체로 나타났다(〈그림 3〉).

〈표 2〉는 유효인맥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가설 2, 3, 4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유효인맥자산의 크기는 계층적 불평등 및 생애주기와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 연령별로는 장년세대로 갈수록 유효인맥자산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며, 소득수준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효인맥자산이 풍부하게 검출된다. 계층별 차이를 보면 핵심적 중산층은 하층이나 주변적 중산층에 비해 풍부한 인맥자산을 가지고 있다(가설 2가 지지됨). 아울러 다른 모든 요인들을 통제하더라도 연고집단과 결사체 참여가 활발할수록 유효인맥자산도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가설 3이 지지됨). 특히 유효인맥에서 다른 요인들보다도 결사체 참여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중간집단참여의 참여가 활발한 사람들, 특히 결사체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인맥의 활용에 있어서도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한편

으로는 인맥이 많은 사람일수록 결사체활동에 활발히 참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결사체활동을 통해 인맥의 활용에 더욱 적극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맥과 결사체참여는 서로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가설 4가 지지됨).

즉 한국사회에서 인맥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크게 가족과 친지와 같은 혈연 및 지연, 학연 등을 통한 연고적인 관계의 인맥이 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응집력이 강한 집단으로서 심리적인 귀속감을 주로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개방적이고 약한 연결망으로 이루어진 결사체 활동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에서는 정보의 교환 및 인맥의 도구적인 활용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경험적인 분석결과 유효인맥이 전문직

〈표 2〉 유효인맥자산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Coef.	Std. Err.	t
연령	0.033	0.008	3.923 ***
남성 (=1)	-0.524	0.193	-2.721 **
본인소득	0.003	0.001	4.023 ***
가구소득	0.001	0.001	2.459 *
교육연수	0.261	0.037	7.074 ***
자가소유 (=1)	-0.025	0.204	-0.124
핵심적 중산층 (=1)	0.676	0.295	2.293 *
주변적 중산층 (=1)	0.184	0.243	0.759
참여연고집단수	0.351	0.091	3.874 ***
참여결사체수	0.560	0.123	4.563 ***
상수항	-3.548	0.682	-5.206 ***
사례수	1384		
F (10, 1373)	27.330		
Prob > F	0.000		
R-squared	0.166		
Adj R-squared	0.160		
Root MSE	3.145		

주: *은 .05수준에서, **은 .01 수준에서, ***은 .001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과 같이 고위관리직 종사자와의 친분관계로서 ‘가족, 친지, 친한 친구, 동창’ 등과 같이 제한되고 폐쇄적인 관계의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연고집단의 참여가 유효인맥에 대해 더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상식적인 이해와는 달리, 인맥의 범위와 해결력에 있어서 연고집단 참여와 결사체 참여가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결사체의 참여에서 인맥활용의 정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결사체 참여여부가 유효인맥에서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개인들의 사회적 관계의 특징은 개념적으로는 상호모순적인 것과 같이 보이는 연고집단과 결사체의 참여가 현실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며, 특히 상대적으로 인맥이 풍부한 사람들이 연고집단과 결사체에 모두 참여하는 복합형적인 참여유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¹⁴⁾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유효인맥은 결사체의 참여효과와 연고집단 참여효과가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고집단에서의 참여여부에 비해 결사체 참여여부가 인맥활용에서 더욱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사회적 관계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IV.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정치-사회적 의식에 미치는 영향

1. 계층귀속감과 인맥의 역할

지금까지는 계층별 인맥의 분포와 중간집단의 참여에 따른 인맥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인맥과 중간집단의 참여가 사회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면 인맥이나 중간집단 참여가 중산층 귀속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앞에 제시한 가설 5에 따른다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맺고 있는 강한 인맥은 자신의 계층귀속감을 상향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계층의식을 확인하였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귀하는 현재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14) 연고집단과 결사체의 참여유형과 비율을 살펴보면, 어떤 유형에도 참여하지 않는 고립형(18%), 연고집단에만 참여하는 연고형(46%), 연고집단과 결사체에 모두 참여하는 복합형(29%), 결사체에만 참여하는 결사형(7%)으로 나뉜다. 모든 계층에서 연고형이 가장 많지만 특히 하층(53.9%)에서 두드러지며 복합형은 핵심적 중산층(37%), 주변적 중산층(30%)에서 많이 나타나며, 하층(18%)에서 가장 적다(남은영, 2007).

대답을 기준으로 중산층 귀속감을 정의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로짓분석을 행하는 것이다 (표 3) 참조).

그 결과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20%에 불과했다. 이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핵심적 중산층의 35%, 주변적 중산층의 12%, 그리고 하층의 5.6%만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결과 중산층 귀속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가족소득과 교육수준, 그리고 자택소유 여부 등의 계층판별 변수들이었는데, 이들을 모두 통제하고 난 후에도 객관적으로 핵심적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는 정체성이 매우 강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모든 변수들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유효인맥자산이 매우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참여한 연고집단이나 결사체의 숫자는 그다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유효인맥자산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스스

〈표 3〉 중산층 귀속감에 대한 로짓분석

	Coef.	z
연령	-0.002	-0.310
남성=1/여성=0	-0.270	-1.628
본인소득	0.000	0.972
가족소득	0.002	3.619 ***
교육년수	0.071	2.111 *
자택소유=1/무주택자=0	0.929	4.301 ***
핵심적 중산층=1/하층=0	1.182	3.982 ***
주변적 중산층=1/하층=0	0.315	1.110
참여연고집단수	0.132	1.634
참여결사체수	0.138	1.409
유효인맥자산	0.042	2.688 **
상수항	-4.450	-7.038 ***
사례수	1384	
chi ² (11)	220	
Prob > chi ²	0.000	
Pseudo R ²	0.159	

주: *은 .05수준에서, **은 .01 수준에서, ***은 .001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로를 중산층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가까운 인맥으로 엮힌 사람들의 지위와 자신의 지위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유상종의 효과(homophily effect)를 드러내는 것이라 해석된다.

가설 6을 검증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계층귀속감을 측정하는 변수로 ① 월소득 수준, ② 자산, ③ 사회적 지위, ④ 문화수준 등의 네 개 영역을 구분한 후, 각 영역에서 “한국사회를 10개의 층으로 나누었을 때 귀댁은 대체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0은 가장 낮은 지위를, 10은 가장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자신의 계층적 지위를 밝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월 소득에서는 3.47, 자산은 3.2, 사회적 지위는 3.25, 문화수준은 3.69 등의 수준으로 인지하였다. 중간이 5의 값을 가진다고 할 때 국민들의 일반적인 계층귀

〈표 4〉 계층적 위치에 대한 자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소득수준	자산	사회적 지위	문화수준
연령	-0.003	0.003	0.000	0.003
남성=1/여성=0	-0.158 ^	-0.047	-0.243 **	-0.154
본인소득	0.002 ***	0.001 **	0.001 ***	0.000
가족소득	0.002 ***	0.002 ***	0.001 ***	0.001 ***
교육연수	0.062 ***	0.040 *	0.086 ***	0.166 ***
주택소유=1/무주택자=0	0.391 ***	0.763 ***	0.362 ***	-0.002
핵심적 중산층=1/하층=0	0.414 **	0.429 **	0.389 **	0.546 ***
주변적 중산층=1/하층=0	0.121	0.093	0.043	0.211
참여연고집단수	0.117 **	0.145 ***	0.140 ***	0.024
참여결사체수	0.092 ^	0.099 ^	0.124 *	0.197 **
유효인맥자산	0.010	0.017 ^	0.033 ***	0.058 ***
상수항	1.540 ***	1.049 ***	1.016 **	0.598
사례수	1384	1384	1384	1384
F	37.14	32.52	32.77	42.55
prob (F)	0	0	0	0
R ²	0.2294	0.2068	0.208	0.2543
Adj R ²	0.2233	0.2004	0.2017	0.2484

주: ^은 .1수준에서, *은 .05수준에서, **은 .01 수준에서, ***은 .001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속감은 매우 하향평준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전반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계층적 위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효과에 있어서는 중산층 귀속감에 대한 결정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본인소득과 가족 소득, 교육연수, 자가소유여부 등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연고 집단 및 결사체 참여와 인맥자산의 효과는 영역에 따라 그 효과를 달리했다(표 4).

경제적 차원인 소득과 자산상의 지위를 평가하는 데는 연고집단 참여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소득, 자산, 사회적 지위의 측면에서 스스로의 지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반면, 결사체 참여가 많은 사람들과 유효인맥자산이 풍부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수준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핵심적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모든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스스로의 지위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여기서도 흥미로운 사실은 유효인맥자산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이나 자산보다는 사회적 지위나 문화수준에서 스스로의 계층적 지위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이다.

2. 중간집단 참여와 정치-사회적 인식

인맥과 다양한 중간집단 참여는 계층 소속감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인식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앞서서도 논의했듯이 이 글에서는 중간집단을 크게 연고집단(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계모임)과 결사체(시민단체, 사회봉사단체, 취미·스포츠단체, 지역사회단체, 이익단체)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고집단과 결사체의 참여가 인맥활용에서의 차이를 보였듯이, 중간집단의 유형에 따라 그 참여도가 정치, 사회적 인식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치의식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활용하였는데, 첫 번째는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이다. “나는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그리고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를 5점 척도로 측정할 결과 정치적 관심의 전체 평균은 약 2.75이고, 정치적 진보성은 약

15) 계층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약간의 격차가 드러나는데, 핵심적 중산층은 4.1(소득), 3.82(자산) 3.91(지위), 4.48(문화) 등의 수준으로 인식한 반면, 주변적 중산층은 3.24(소득), 2.97(자산) 3.01(지위), 3.49(문화) 등의 수준으로 인식하였으며, 하층은 스스로의 위치를 2.70(소득), 2.50(자산) 2.50(지위), 2.70(문화) 등의 수준으로 인식하였다.

2.8점으로서 3점을 중간값이라고 할 경우 전반적으로는 무관심이나 보수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과(〈표 5〉)는 여타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중산층 유무가 정치적 관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여타 변수들을 통제하면 그 차이는 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연고집단 참여와 결사체 참여경험이 서로 상반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연고집단 참여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는 경향이 높으며, 반대로 유효인맥을 통제한 상태에서 결사체 참여가 활발하며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고집단에 대한 참여는 폐쇄적인 소속감을 강화시켜 보수적이고도 배타적인 태도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결사체에 대한 참여가 활발한 이들은 개방적이고 진보적이며 참여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 정치적 관심과 정치성향에 대한 회귀분석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적 성향 (높을수록 진보적)
연령	0.012 ***	-0.010 ***
남성=1/여성=0	0.381 ***	0.031
본인소득	0.000	0.000
가족소득	0.000	0.000
교육연수	0.064 ***	0.024 *
자가소유=1/무주택=0	0.094	0.017
핵심적중산층=1/하층=0	-0.121	0.027
주변적중산층=1/하층=0	-0.051	0.019
참여연고집단수	-0.008	-0.053 *
참여결사체수	0.175 ***	0.044
유효인맥자산	0.028 ***	0.008
상수항	1.020 ***	2.953 ***
사례수	1384	1384
F	16.150	7.810
prob(F)	0.000	0.000
R ²	0.115	0.059
Adj R ²	0.108	0.051

주: *은 .05수준에서, **은 .01 수준에서, ***은 .001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지역차별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모두 3개의 문항을 사용했는데, 친구사귀기와 결혼상대 고르기, 그리고 동업 또는 금전적 거래의 파트너를 고를 때 얼마나 상대방의 '출신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여 5점척도로 응답하게 했다.

분석의 결과(〈표 6〉)는 지역차별의식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으로서 나이가 많을수록 지역차별적 태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구사귀기나 결혼상대 고르기, 그리고 동업이나 금전적 거래의 파트너를 정할 때 연령이 많은 세대일수록 상대방의 출신지역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결혼상대 선정에 있어서는 여성이 유의미하게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표 6〉 지역차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친구사귀기	결혼상대 선정	동업 및 금전거래
연령	0.016 ***	0.017 ***	0.015 ***
남성=1/여성=0	-0.090	-0.239 **	-0.111
본인소득	0.000	0.000	0.000
가족소득	0.000	0.000	0.000
교육연수	0.012	0.031 *	0.013
자가소유=1/무주택=0	-0.100	0.028	-0.039
핵심적중산층=1/하층=0	-0.125	0.059	-0.014
주변적중산층=1/하층=0	-0.044	-0.021	0.000
참여연고집단수	0.083 *	0.088 *	0.075 *
참여결사체수	-0.019	-0.051	0.004
유효인맥자산	-0.003	-0.011	0.008
상수항	1.580 ***	1.463 ***	1.768 ***
사례수	1376	1377	1366
F	5.500	5.170	4.330
prob(F)	0.000	0.000	0.000
R ²	0.043	0.040	0.034
Adj R ²	0.035	0.032	0.026

주: 1. *은 .05수준에서, **은 .01 수준에서, ***은 .001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2. 문항

친구사귀기: 친구로 사귀며 상대방의 출신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혼상대: 결혼상대를 고를 때 상대방의 출신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동업: 동업 및 금전적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출신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교육은 부분적으로 결혼상태 선정시 지역차별적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 외 일관성 있는 요인은 연고집단 참여의 횟수이다. 참여하는 연고집단이 많을수록 지역차별적 태도가 일관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을 회귀분석의 결과는 보여준다. 연고집단에서의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폐쇄적이고 동질적인 집단 내의 높은 밀도 상호작용속에 매몰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연고집단의 가치나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타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연고집단 활동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의식을 강화시켜 시민사회내 시민의식의 성장에 저해가 되는 경험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표 7> 사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탈권위	타인동조	공동체 의식	타인신뢰	일반신뢰	실력주의
연령	0.008 ***	0.004 ^	0.004 ^	-0.002	0.000	-0.001
남성=1/여성=0	0.063	0.042	-0.049	0.029	0.007	-0.008
핵심적증산층=1/ 하층=0	0.040	-0.168 *	0.121 ^	0.067	0.086	0.212 ***
주변적증산층=1/ 하층=0	0.120	-0.073	0.151 *	0.130 *	-0.018	0.151 *
참여연고집단수	0.022	-0.003	0.030	0.001	0.042	0.011
참여결사체수	0.100 *	-0.112 **	0.139 ***	0.094 **	0.093 **	0.058 ^
유효인맥자산	0.015 *	-0.010	0.019 ***	0.009 ^	0.003	0.002
상수항	2.796 ***	3.172 ***	3.510 ***	1.608 ***	2.845 ***	3.993 ***
Number of obs	1381	1380	1391	1391	1391	1391
F(7, 1495)	5.920	5.000	8.450	3.140	2.910	3.610
Prob > F	0.000	0.000	0.000	0.003	0.005	0.001
R-squared	0.029	0.025	0.041	0.016	0.015	0.018
Adj R-squared	0.024	0.020	0.036	0.011	0.010	0.013
Root MSE	1.031	0.969	0.901	0.905	0.898	0.834

주: 1. *은 .05수준에서, **은 .01 수준에서, ***은 .001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2. 문항

탈권위: 윗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틀렸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지적한다.

타인동조: 나는 가능한 다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

공동체 의식: 동네사람들이 힘을 합친다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타인신뢰: 현금 10만원이 든 지갑을 거리에서 잃어버렸어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신뢰: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

실력주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면, 친분 있는 사람보다는 실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다양한 사회의식과 사회적 관계형성간의 관계이다 (<표 7> 참조). 사회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탈권위주의적 태도, 타인에 대한 동조, 공동체적 협조의식, 타인이나 일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실력주의(meritocracy)에 대한 태도 등을 질문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탈권위주의적 태도는 젊은 세대에서, 그리고 유효인맥자산이 많으며 결사체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진다.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조는 핵심적 중산층이나 결사체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에게서는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들은 개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네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공동체의식은 중산층에서, 특히 주변적 중산층에서, 그리고 결사체 경험이나 유효인맥이 풍부한 사람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 ‘현금이 든 지갑을 잃어버려도 누군가 돌려줄 것이라’는 타인에 대한 신뢰는 주변적 중산층과 결사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에게서 모두 높게 나타나며, 일반인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다는 태도도 결사체경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한편 ‘인입사원 채용시 친분보다 실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실력주의적인 태도는 핵심적 중산층과 주변적 중산층 모두에서 하층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다.

이러한 분석에서 확인되는 바는, 중산층이 비교적 개성적이고 공동체의식이 강하며, 타인에 대한 신뢰와 실력을 중시하는 경향 등 매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점이다. 이에 부가하여 가장 중요한 사실은 참여 결사체수는 신뢰 및 공동체의식에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결사체에 대한 참여경험은 건전한 시민의식과 신뢰, 그리고 제도의 작동에 필요한 다양한 도덕적 자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 인맥과 결사체 참여경험은 상호 상승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 결사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일수록 연고집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비해 도구적인 인맥의 활용이 더욱 활발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유효인맥이 계층귀속감에 있어서 중산층 귀속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 반면, 결사체 참여경험은 사회적 지위와 문화수준에서의 계층적 지위를 높게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반해 연고집단의 참여는 소득과 자산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귀속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연고집단 참여는 주로 경제적 지위에 대해, 결사체 참여는 주로 문화적 지위에 대한 계층적 인식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연고집단 참여와 결사체 참여가 사회의식에서는 상이한 방향으

로 나타나서 연고집단에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결사체 참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스스로 진보적이며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친구사귀기, 결혼상대 선정, 동업 및 금전거래에서도 연고집단 참여도가 높을수록 지역차별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결사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탈권위적이며 공동체의식이 강하고 타인이나 일반인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결사체에의 참여는 양면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질적이고 중첩되지 않은 유효인맥을 증가시켜 인맥동원의 효과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또한 주관적인 계층의식에도 영향을 미쳐 가족의 사회적 지위와 문화수준을 더욱 높게 인식하도록 하여 계층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결사체활동은 인맥의 효용과 계층적 지위에서의 주관적인 보상감을 높이는 도구적인 역할을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발적 결사체의 경험을 한 사람들일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탈권위주의적인 태도가 강하고, 또한 타인에 대한 동조보다는 개인의 개성과 자존감에 대한 존중경향이 두드러지며,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기대가 높고, 타인과 일반인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시민의식의 도덕적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즉 결사체활동은 탈권위주의나 개성중시, 공동체의식, 신뢰 등과 같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인맥과 결사체활동의 효과를 함께 고려해 볼 때, 개념적으로는 상호배제적인 것처럼 보이는 인맥활용의 도구적인 역할과 건전한 시민의식 제고의 규범적인 역할이 현실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16) 각각의 자발적 결사체(취미·스포츠단체, 봉사단체, 시민단체, 이익단체, 지역사회단체)의 특성별 참여효과에 대해 정치·사회 의식에서의 차이를 고찰하면, 정치관심도와 공동체 의식에서 이익단체 참여도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탈권위는 특히 시민단체참여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일반신뢰는 시민단체, 봉사단체, 지역사회단체참여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타인신뢰는 봉사단체, 지역사회단체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타인동조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취미·스포츠단체와 봉사단체에서, 실력주의에 대한 지지는 지역사회단체참여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V. 토론 및 결론

결사체 경험과 인맥형성은 한국사회의 사회적 자본 축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이 글에서 행한 분석에서는 다소 양가감정적인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적인 맥락에서 ‘인맥’은 도구적인 방식으로 정보와 통제력을 교환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콜만의 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는 미시적인 현상이지만, 그것이 장기간에 걸친 상호인지과정, 즉 인격윤리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고, 또한 계층간의 불평등한 차별화로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부르디외가 생각했던 사회적 자본개념에 근접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맥은 그 자체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합리적 선택에 의해 변경되지 않으며, 또한 인맥의 특성상 중요한 자원과 정보를 관할하는 능력이 많은 상층부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여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에서 핵심적인 중산층일수록, 그리고 스스로 중산층 귀속감을 강하게 가진 사람일수록 풍부한 인맥자산을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맥의 풍부함은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중산층귀속감과 효능감의 장기적인 원천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한국적인 사회계층의 구조화와 재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제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이러한 인맥의 발달이 퍼트남이 우려했던 바와 같은 의미의 사회적 자본, 즉 거시적 수준에서의 시민의식이나 민주적 제도의 작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맥형성이 어떤 유형의 집단참여를 통해 확장되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연고집단을 기반으로 하는 인맥보다는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 확장된 인맥의 경우에 보다 탈권위적이고 참여지향적인 태도나 의식과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의 제약상 인맥의 구체적인 작동방식이나 인맥 동원의 효과에 대한 자세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인맥자산의 역할은 양면적이다. 한편으로 강한 결속력과 귀속감을 바탕으로 하며, 서구적 배경에서 논의가 된 약한 연계(weak ties)의 효과라기보다는 오히려 강한 관계(strong ties)가 가진 효과이기 때문에, 구조혈을 메워주는 역할도 일정부분 할 수 있지만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배타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자료분석에 따르면 적어도 핵심적 중산층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풍부한 인맥자산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경우에 의식이나 태도에서 배타성으로 흐르기보다

는 자기 계층의 사회문화적 자존감을 높이고 정치와 사회현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키며 탈권위주의적 태도와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더 많이 창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실제 행위에 있어서도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유지되는지, 혹은 행위와 의식 간 이중성이 더 큰지는 추후 연구할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사실은 중간집단 참여의 양상과 그것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중간집단을 연고집단과 결사체로 구분한 후 각각의 참여양상을 살펴본 결과, 인맥자산이 풍부한 사람들은 연고집단과 결사체활동에 모두 적극적이어서, 두 유형의 효과가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은 별 모순이나 고민 없이 서로 상이한 유형의 조직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중산층적 속성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특히 연고집단과 결사체에 모두 참여하는 복합형 참여 경향이 유의미하게 두드러졌다는 점도 연고집단과 결사체 경험이 모두 동시에 추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유효인맥과 결사체 참여가 정치적 관심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유효인맥이 풍부한 사람들은 연고집단과 결사체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유효인맥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인간관계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결사체 참여의 효과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같은 발견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적이고 도식적인 이해가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변형이 일어나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으며, 관계적 자본의 혼합적 성격(넨 린, 2004)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경험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연고집단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두드러지는 폐쇄성과 보수성이다. 연고집단의 특성상 귀속적인 지위를 물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강한 결속력 속에 감추어진 내부규율과 동조화의 압력을 고려할 때 연고집단에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중산층을 자산가와 동일시하고, 경제적인 척도로 재단하려 하며, 사회적 다양성과 이질성에 대해 용인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참여적 시민의식이나 문화적으로 세련된 개방성을 갖춘 시민문화와는 어울리기 힘든 배타성, 그리고 경제적 속물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더구나 지역차별의식과 같은 스테레오타입, 그리고 사회적 편견에 노출될 경우 성찰성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한국적 문화의 풍토에서 연고집단의 영향력이 매우 광범하여 연고집단에 빈번히 노출된다 하더라도, 결사체 참여 경험을 늘리는 것은 시민의식을 제고

하는데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유는 결사체경험이 높을수록 중산층귀속감, 특히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며 중산층의 사회적 기여나 도덕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 결사체의 경험을 한 사람들일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탈권위주의적인 태도가 강하고, 또한 타인에 대한 동조보다는 개인의 개성과 자존감에 대한 존중경향이 두드러지며,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기대가 높고, 타인과 일반인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시민의식의 도덕적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퍼트남이 제기한 사회의 도덕적 용량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결사체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첩경이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유효인맥을 기존의 파벌과 닫힌 균열로 이끄는 사회분열적인 역할로 동원하기보다는 건강하고 성숙한 집단 간 경쟁의 동원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경동. 1993. 『한국사회변동론』. 나남출판.
- 김용학. 2003. “한국사회의 학연: 사회적 자본의 창출에서 인적 자본의 역할.” 김성국·석현호·임현진·유석춘 편. 2003.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한국의 집단주의와 네트워크』. 서울: 전통과 현대.
- 나은영·민경환. 1998. “한국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75~93.
- 남은영. 2007. 『한국의 소비문화와 중산층의 생활양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넌 린. 2004. “신뢰의 사회적 맥락.” 『신뢰, 지구촌 시대의 사회적 자본』. 집문당. pp. 23~63.
- 박승관. 1994. 『드러난 얼굴과 보이지 않는 손: 한국사회의 커뮤니케이션구조』. 서울: 진예원.
- 박종성. 1992. 『정치는 파벌을 낳고, 파벌은 정치를 배반한다』. 한울.
- 송호근. 2003.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세대, 그 갈등의 조화와 미학』. 삼성경제연구소.
- 이영훈. 2000. 『파벌로 보는 한국 야당사』. 에디터.

- 이이화. 2004. 『한국의 파벌』. 솔과학.
- 이재열. 2003. “사회적 자본과 시민의식: 서울시와 자치구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주는 함의.” 『지역사회학』 5(1) : 41~81.
- _____. 2005.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사회론.”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 25~71.
- _____. 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학』 8(1) : 33~67.
- 장윤식. 2001. “인격문화와 한국사회.” 석현호·유석춘 공편 『현대한국사회 성격논쟁: 식민지, 계급, 인격윤리』. 전통과 현대.
- 정수복. 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당연의 세계 낯설게 보기』. 생각의 나무.
- _____. 1996. “한국인의 모임과 미시적 동원맥락.” 『경제와 사회』 29(봄호) : 102~125.
- 陳衛平(첸웨이핑). 1999. 『中西哲學比較面觀』. (고재욱 옮김. 『일곱주제로 만나는 동서비교철학』. 예문서원).
- 최재석. 1976.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 하용출. 2006. “한국 시민사회의 특성에 관한 연구: 후발산업화와 국가-사회관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김정오 외 『한국사회의 정체성과 글로벌 표준의 수용』.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완상·권태환·홍두승. 1987. 『한국의 중산층』. 한국일보사.
- 홍두승. 2005.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 출판부.
- Bian, Yanjie and Soon Ang. 1997. “Guanxi Networks and Job Mobility in China and Singapore.” *Social Forces* 75: 981~1006.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pp.241~258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Bourdieu, Pierre and Loic J. D. Wacquant. 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eiger, R.L. 1974. “The Duality of Persons and Groups.” *Social Forces* 53(2) : 181~190.
- Burt Ronald.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2. “The Social Capital of Structural Holes.” pp.148~190 in *The New Economic Sociology: Developments in and Emerging Field*. edited by M. F. Guillen, R. Collins, P. England, and M Mayer. New York: Russell Sage.
- Coleman, Jame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120.

- De Graaf, Nan Dirk and Hendrik Derk Flap. 1988.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Social Forces* 67(2) : 452~472.
- Giddens, Anthony. 1986.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ranovetter, Mark. 1974.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3. "The Strength of Weak Ties : A Network Theory Revisited." *Sociological Theory* 1: 201~233.
- Hall, David L. and Roger T. Ames. 1987. *Thinking Through Confucius*.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sung, Ray-May and Ching-Shan Sun. 1998. *Social Resources and Social Mobility: Manufacturing Employees*, Tiwan: National Science Council.
- Krishna, Aniruth. 2000. "Creating and Harnessing Social Capital." pp. 71~93 in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edited by P. Dasgupta and I. Serageldin, Washington DC. World Bank.
- Laumann, Edward O. 1973. *Bonds of Pluralism: The Form and Substance of Urban Social Network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Lee, Jaehyuck. 1996. *Rational Analysis of Social Institu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Sunhwa and Mary C. Brinton. 1996. "Elite Education and Social Capital: The Case of South Korea." *Sociology of Education* 69(3) : 177~192.
- Lin, Nan. 1999. "Social Networks and Status Attain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5: 467~488.
- _____.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 Nan, Walter M. Ensel, and John C. Vaughn. 1981. "Social Resources and Strength of Ties: Structural Factors in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4, August) : 393~406.
- Marsden, Peter V. and Jeanne S. Hurlbert. 1988. "Social Resources and Mobility Outcom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Social Forces* 66(4) : 1038~1059.
- Meyerson, Eva M. 1994. "Human Capital, Social Capital and Compensation: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Social Contacts to Managers' Incomes." *Acta Sociologica* 37: 383~399.
- Nisbett, Richard.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and Why*. (최인철 역. 『생각의 지도: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김영사).

Podolny, Joel M. and James N. Baron. 1997. "Resources and Relationships: Social Networks and Mobility in the Workpla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 no. 5: 673~693.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안청시 외 역 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Putnam, Robert.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Y: Simon & Schuster.

Skocpol, Theda and Morris P. Fiorina. 1999. "Making Sense of the Civic Engagement Debate." pp. 1~23 in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Brookings Institution Press.

Smart, Alan. 1993. "Gifts, Bribes, and Guanxi: A Reconsideration of Bourdieu's Social Capital." *Cultural Anthropology* 8(3) (Aug., 1993): 388~408.

Verba, Sidney, Kay Lehman Schlozman, and Henry E.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Woolcock, Michael.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151~208.

이재열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및 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경제사회학, 조직사회학, 네트워크 분석, 사회의 질 등이며 주요 저술로는 『경제의 사회학』 (1996), 『이중적 위험사회형 재난의 구조』 (2004), <기업구조와 변화: 재벌조직을 중심으로> (2000) 등이 있다.

남은영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및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중앙대학교 차세대에너지연구단 참여연구원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소비사회학, 문화사회학, 사회계층 등이다.

	접수	1차심사 완료	1차수정 원고접수	2차심사 완료	2차수정 원고접수	3차심사 완료	3차수정 원고접수	게재확정
이재열 남은영	07-10-06	08-1-9	2-18	4-2	4-8	6-9	12-9	12~18

The Social Capital of Koreans
Determinants of Personal Ties and Its Effect

Yee, Jaeyeol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Nam, Eun-Young

The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reveal the social ecology of ordinary Koreans by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personal ties and its effect on the attitude and consciousness of the people. For that purpose we invented the concept of 'effective relational capital (ERC)' by combining personal ties and their effectiveness. The research found that ERC of the core middle class is broader than those of lower classes. Thus ERC is an important element for the middle class consciousness. ERC is more actively produced by participation on diverse social groups, especially voluntary associations. We also found very interesting differences between the organizational participations and the political and social attitudes: those who participate eagerly in pseudo-familial ties tend to be more conservative in political issues and showed stronger stereo-type against people from different regional background. Those who cultivated rich ERC through participation in voluntary associations were more tolerant on minorities, showed higher trust on society, and less authoritarian attitude. All these findings support the argument that the duality of personal ties and social cliques should be considered more seriously when we apply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to Korean society.

Key Words : social capital, middle class, effective relational capital, pseudo-familial groups, voluntary association, trust